광주시청·관련 단체 통합 노조 출범
채길성 상임의장·안주태 사무총장

채길성

광주시청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 관련 기관 노동조합을 하나로 아우른 연합 노조가 출범했다.

광주시공공노동조합연합(이하 광공연)은 지난 27일 광주시 회의실에서 출범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광공연 상임의장에 채길성 전 공노총수석부위원장을, 사무총장에 안주태씨를 각각 선출했다.

광공연에는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무기계약직노동조합, 광주시도시공사노동조합, 광주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광주환경공단노동조합, 광주시김대중컨벤션센터노동조합, 광주시출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했다.

채길성 상임의장은 "광공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국민 지킴이 구실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공공기관 노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겠다"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노동자와 서민이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채 상임의장은 또 "근무조건 향상 및 조합원의 고충 해결, 조합원이 공감하는 인사,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질 강화, 지역 내 연대 강화 등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길성 상임의장은 광주시 초대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냈으며, 공무원노조 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숭덕고 담양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율형 사립고인 숭덕고등학교(교장 박판우)는 최근 담양 성암국제수련원에서 사흘에 걸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학교 소개 및 대학 입시전형 안내, 리더십 특강 등을 진행했다 〈숭덕고 제공〉

교통안전공단, DJ센터서 교통안전 간담회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강순봉)는 최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타에서 공무원,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제공〉

"30년 학자로 살다 신인 소설가 됐습니다"

소설 '담징' 펴낸 본보 칼럼 저자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글을 쓰면서 30년 교수 생활이 너무 안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대의 고승인 담징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던 전방위 문화인이에요. 소설가도 절필을 하는 나이에 펜을 든 만큼, 앞으로 하루 하루 '승부'를 거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본보의 '김민환의 세상읽기' 칼럼으로 독자에게 친숙한 원로 언론학자 김민환(68) 고려대 명예교수가 소설 '담징'(서정시학)을 출간하며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꿈이 기자 생활 후 말년엔 소설을 쓰는 것이었는데, 혼란스런 시대상황의 영향으로 학자로의 삶을 선택하게 됐다"며 "친분이 있던 임권택 감독에게 담징의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을 보이더라. 도전해 봄직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10년 퇴임 후 완도군 보길도로 내려와 '남은재(南垠齊)'를 짓고 집필활동에 전념한 지 3년째. 300쪽 분량의 소설로 변신한 '담징'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 소설에는 일본 호류사(법륭사) 금당벽화로 잘 알려진 고구려 승려이자 화가 '담징'이 느끼는 인간적인 고뇌와 예술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쯤 되니 '근대언론사'가 전공인 그가 역사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를 담고 전달하는 종이 같은 매체가 필수죠. 우연히 담징이 일본에 종이와 채색화를 보급했다는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더 알아보니 맷돌, 칠기 등 생활 도구를 일본에 소개한 이도 그였고요. '학식 높은 고승이 민중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전달했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깨달음에는 번민과 애욕이 동반되기 마련인 것. 수도의 과정에서 민중과 함께 부대낄 수밖에 없었겠다는 가정하에 그는 글을 써내려갔다. 고려대 최동호 교수에게 '플롯(줄거리)'을, 경희대 서하진 교수에게는 소설의 세부적인 표현 방법을 배웠다.

고증이 뒷받침되지 않은 역사소설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100여 권의 불교 서적과 수많은 관련 서적을 읽고 분석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 오경(五經)은 물론 불교 경전과 음악에까지 소견이 깊은 담징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마다 담징이 곁으로 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던 보길도의 시간을 2년 반이나 견딜 수 있었죠." 김 교수는 "상상이 발전해 현실 같은 허구로, 사실의 역사가 소설로 탄생하는 체험은 너무 환상적이었다"며 탈고 후 감상을 전했다.

김 교수는 1921년 '자유시사변'과 60년 대 대학생활을 소재로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

"독일 통일·차범근 선수 활약 기억에 남아"

한-독 교류 헌신…퇴임 주한 독일대사관 도필영 공보관

1972년부터 41년 간 한국과 독일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오던 도필영(66) 주한 독일대사관 공보관이 28일 퇴임식을 가졌다. 그동안 독일 대사 11명과 총리 5명의 곁에서 한·독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역사의 산 증인'인 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 시원하고 섭섭한 기분"이라며 퇴임 소감을 밝혔다.

1972년 한양대 공대를 졸업한 후 한 기업체에 잠시 몸담았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독일 대사관에 취직한 후 양 국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헌신해 왔다.

그는 "특히 1990년 독일 통일에 보냈던 국내 언론의 환호와 관심을 보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며 "이 밖에 1978년 당시 차범근 선수가 활약했던 분데스리가 방송 판권을 주선한 일 등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았다"고 추억했다.

그런 그는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전(前) 독일 대사가 부임하기 앞서 전남대에서 3개월간 한국어 연수를 받을 때 주선을 해준 이가 도 공보관이다. 자이트 전 대사는 2011년 화순전남대병원-독일 프라운호퍼 세포치료 및 면역연구소 분원 유치와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얀 포글러(Jan Vogler) 광주공연 성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난해 4월에는 전남대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2013년 은 한·독 수교 130주년,파독광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그는 "자라면서 가정과 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독일의 책임의식을 한국이 배운다면 신뢰의 상징인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에 버금가는 국가 브랜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까막눈 벗으니 새 세상이네요"

오십 넘어 목포제일정보중 입학 이미옥씨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고통은 글을 모르는 사람만 공감하는 아픔이죠. 글을 배우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50이 넘은 나이에 오는 2일 목포제일정보중학교에 '새내기'로 입학하는 이미옥(여·56)씨의 하루하루는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어려운 형편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어린시절, 1남 2녀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글 모르는 한(恨)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야 만학의 꿈을 이룬 것이다.

"버스 정류장을 못 읽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메뉴판을 놓고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로 주세요'라고 말해야 했던 고통을 누가 알아요."

부끄러운 마음에 남 모르게 속을 앓아야 했던 그녀는 6년 전, 목포제일정보고 평생교육원에서 처음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 '이름 석 자 모르는 까막눈'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새벽부터 시작하는 바다 일에 지쳐도 수업을 빠진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늦은 나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았다. 한글 한 자를 배워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곤 했다. 좌절이 몰려왔다. 그럴 때마다 가족의 응원과 사랑이 있어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딸이 '우리는 글을 배우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공부했어요. 엄마도 조급해 마세요'라고 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은 밤마다 옆에서 공부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운전면허도 따고 올 해는 학교도 입학하게 됐네요. 꿈만 같아요."

올해로 개교 52년을 맞이하는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이씨와 같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늦깎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최고령자 서정균(69), 임순자(여·72세)씨를 비롯한 총 638명이 입학식에 참가한다. 문의 061-273-4281.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여천NCC, 독거노인 집 찾아 집수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총괄공장장 최보훈)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여수시 선원동 반월마을 독거노인인 정모(74) 할머니의 집을 찾아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

정 할머니 집은 지난해 태풍으로 지붕이 깨지고 현관문이 날아가 주거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비오는 날이면 물이 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현관문 대신 막아 놓은 양철판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견뎌야만 했다.

이런 정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여천NCC 봉사대원 25명은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모은 500만원을 가지고 정 할머니 집에 새 전기배선을 깔고, 현관문 교체와 지붕 수리를 완료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김광열 광양제철 외주파트너사 회장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협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15대 회장으로 에프엠씨 김광열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1987년 결성한 외주파트너사 협회는 현재 60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 간 친목 도모,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조직된 기업인 단체다. 이날 부회장에는 (주)피엠에스 조원국 대표, 이인성 삼진기업 대표, 이광용 유니테크 대표, 감사로 하택호 광희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임이엽 광주시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광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4대 회장에 임이엽(56) 첨단지역아동센터 원장이 선출됐다.

임 신임 회장은 지난 2008년 연합회 창립 주역으로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임 회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교사 처우 개선 등 아동센터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광주대 총동문회 부회장과 지구촌환경복지연구원 광주지부장, (사)안전모니터봉사단 광산구지부장 등을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인사

◆광주 남구

◇5급 전보 ▲도서관과장 김종현 ▲경제과장 전순란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 ▲안전행정과장 이태호 ▲세무과장 박신석 ▲민원봉사과장 이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예성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은현 ▲공원녹지과장 최병태 ▲교통과장 김덕중 ▲보건위생과장 한장숙 ▲의회사무국(사회건설전문위원) 고흥석 ▲효덕동장 배윤식

◇직제개편(국장급) ▲문화경제국장 안병호 ▲자치행정국장 김범일 ▲복지환경국장 이우수 ▲도시관리국장 김청호

◆광주대

▲교무처장 최준영(사회복지학부 교수) ▲학생지원처장 전정환(경찰·법·행정학부 교수) ▲국제교류센터장 이상기(중국어학과 교수) ▲교무부처장 김황용(작업치료학과 교수)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강병연(한국청소년인권센터 이사장)씨 장남 재묵(전남대병원 홍보실)군 이복근씨 차녀 미란(광주기독병원 간호사)양=1일(금) 오전 11시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오덕순·황종진씨 차남 현성군 백범선·안양숙씨 차녀 지혜양=1일(금) 낮 12시 30분 구례 지리산 프라자호텔 1층 웨딩홀, 예식당일 무등경기장 입구 오전 10시 30분 출발.

▲박명래·김영화씨 장남 은수(광주일보 출판부)군 박동열·조덕희씨 삼녀 수진양=2일(토) 오후 1시 꿈의 궁전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종친회

▲광산이씨 용산문중 정기총회(회장 이진억)=1일(금) 오전 10시 문중회관(금남로 5가 74-5) 062-223-6840.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지원장 이달우) 제35회 정기총회=5일(화)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3층 062-225-5636, 5631.

향우회

▲재광 곡성 삼기 향우회(회장 김채정)=3일(일) 오후 6시 남도예술영양돌솥밥(두암동) 062-266-5566.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육) 월례회=5일(화)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술 문제 있는 우리가족 어떻게 하나요?" 알코올 전문의 초청 공개강좌=9일(토) 오전 10시30분 ~ 12시(비용무료)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사)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신입회원=기간은 4월 2일~25일까지 시내 도서관 및 공공시설 내 책돌이 도서관 062-266-7279.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강사 양성과정=교육기간은 5일(3월14일·15일·19일·20일·22일) 오후 1시30분~5시, 모집대상은 청소년자원봉사교육 강사 활동 가능한 성인, 모집기간 26일(화)~3월 8일(금)(총 5명) 교육비 2만원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장구, 징,꽹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부음

▲강공례씨 별세 양동석·동률(서울약업 이사)씨 모친상 양세열(광주일보 사회부·채널A 기자)·도열(서울본부세관)·보열(농어촌공사 담양지사)씨 조모상 =발인 1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이민선씨 별세 홍규·향화·향은·향현씨 부친상=발인 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이양님씨 별세 김영만·영식·영수·영철·금미·현자씨 모친상=발인 1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최원용씨 별세 영직·영길·영호·아델라·숙희·복희씨 부친상=발인 1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민효식 (남/74세)
子/壻:민병돈/김영매, 병권/박주영
女/壻:민병례/김동진
• 호실:201호 • 발인:3월 1일
• 장지:화순도곡 • 연락처:227-4381

故서일호 (남/86세)
子/壻 :서홍기/윤현희, 연기/정혜영, 상기/허현정
女/壻:서연자, 차남/박상철, 상남/김준수, 연순/신주철
• 호실:301호 • 발인:3월 1일
• 장지:대전현충원 • 연락처:227-4382

故강공례 (여/91세)
子/壻:양동석/박신자, 동률/배길자
女/壻:양월희, 금남/정연옥
• 호실:401호 • 발인:3월 1일
• 장지:화순 도곡 선영 • 연락처:227-4383

故한일석 (남/83세)
子/壻 :한정찬/김일심
女/壻:한순금, 금숙/정찬백, 미정/헌규남
• 호실:402호 • 발인:3월 1일
• 장지:화순 도암선영 • 연락처:227-4314

故정공순 (여/97세)
子/壻 :김학기/정국심, 성기/박진희, 호규/박미정 女/壻:김미자/박영주,미순, 삼순/곽순기
孫 :김강석
• 호실:101호 • 발인:3월 2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5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